

Keats 詩의 構造

박 찬 조
(공주 대학교)

Park, Chan-Jo. (1998). The dramatic structure in Keats' poetry. *English Language and Literature Teaching*, 4, 229~247.

Keats is a poet who was in pursuit of 'the beautiful'. He tried to show various structures in his poetry to search for 'eternal pleasure'. These are explained in terms of 'metamorphosis', 'travel structure' and 'metamorphosis patterns', but put together, these can be expressed as simple terms of a dramatic structure. Especially We can assume this dramatic structure is the key to access his poetry on the basis of the fact that Keats always admired the world of drama and respected Shakespeare most. We can see Keats' dramatic structure in his poetry *Ode to a Nightingale*, *Ode on a Grecian Urn*, *To Autumn* and so on, and in these three poems, he was very successful in achieving unique poetic expression by inducing 'tension structure' through the dramatic structure of Introduction - development - crisis - climax - ending. In conclusion, his poetry achieved success in that he made clear his central theme, the pursuit of a beautiful and happy life through the application of a dramatic structure.

I

영국 문학에서 19세기 낭만주의 문학을 결실케 한 John Keats(1795~1821)는 다른 어느 시인보다도 상상력의 가능성을 깊이있게 탐색했던 위대한 시인이었다. 특히 감각과 열정 그리고 상상에 의한 그의 시는 삶에 대한 본질

적인 애착과 능동적인 자세를 직접적으로 실천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짧은 생애를 통하여 감각적인 미를 탐구했으며 자연과 인간과 예술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내고자 노력 했고, 또한 상상력을 통해서 “아름다움은 영원한 기쁨”이라는 미의 개념을 터득, 그것을 자신의 詩속에서 꾸준히 발전시켜 진정한 의미를 부각시키는데 노력을 기울였다. 그에게 있어서 시란 영원한 것이고 상상력의 산물이며 또한 인간의 마음속에서 느끼는 사랑의 열정이나 꿈의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 내는 것으로써, “마음의 애정이 지나는 성스러운 것과 상상력이 지나는 진실성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확신하지 않았고 상상력이 아름다움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틀림없다”(Keats 37)고 생각했던 시인이었다.

Keats는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창조해내는 사랑이 우리의 열정과 같다고 생각하면서 상상을 통해 체험한 영원한 아름다움이 인간에게 행복과 위로와 삶의 희망에 대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리하여 자신이 창조해낸 시적인 언어를 통해 미의 본질과 아울러 현실과 이상세계를 경험한 후 이룩해낸 성숙한 사랑에 도달하려 했던 것이다. 이러한 자신의 미학을 추구하기 위해 그는 다양한 시작(詩作) 태도를 견지하면서 자신의 주제를 시속에 밝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절한 시적 구조와 매혹적인 시어의 선택으로 시를 쓰려고 꾸준히 실험하고 노력했다. 실로 탄탄한 구조와 아름다운 시어가 어우러진다면 완성도 높은 한편의 시가 탄생될 수 있는 것이다. Keats의 경우 그가 표현해냈던 시어들은 눈부시리 만큼 아름다우며 이러한 시어들에 대한 평자들의 비평은 대개 일치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나 그의 시적 구조에 관해서는 다양한 목소리가 전개되고 있는데 Allot가 *Endymion*을 분석하면서 “감정상의 곡선”(emotional curve) 이라고 한 것이나 Ward가 *The Fall of Hyperion*을 설명하는 가운데 “변형”(metamorphosis)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서 Keats의 시적 구조의 근본원리로 파악한 것, 또한 Stillinger가 Odes 형식을 분석하는 가운데 비유적 의미로서 현실에서 이상으로 돌아오는 “여행구조”로 설명한 것과 최근에 Gradman이 표방한 “변형 패턴”(metamorphosis patterns)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설명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주장들을 아우르는 “극적 구조”(dramatic structure)를 제시하여 세 편의 시들을 분석해 보임으로서 Keats의 많은 시들이 구조면에서

“극적 진실(dramatic reality)”을 보여주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극적 구조”가 Keats 시의 미학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 지를 살피고자 하는데 이러한 주장은 Keats가 항상 극적인 세계를 동경했다거나 그가 가장 존경하는 시인이 Shakespeare 였다는 사실 등으로 미루어 더욱 확신을 갖게 하며 Bemice Srote가 Keats의 sonnet 가운데 “*What the Thrush said*”를 분석하면서 이 시의 의의를 ‘dramatic voice’ 에 두고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By the wise thrush we learn one way of being, an ideal of harmony by reception, not pursuit. The point is that it is not Keats's argument, nor even his conclusion, but one way of perception and even creation dramatized by an actor perfect for the part.(132)

한편 이 ‘Thrush’의 세계는 그가 Wordsworth에서 비롯되어 Shakespeare의 세계로 들어가는 첫 통로였다. Keats가 Ode : Intimations of Immortality나 Tintern Abbey 등을 비롯한 많은 시들을 애송하며 Wordsworth를 존경해 마지 않았고 당시의 위대한 시인으로 그를 꼽기를 주저하지 않았으면서 한 편으로 비판했던 점은 객관과 동일성의 세계가 부족하다는 점이었고 이는 Shakespeare에서 풍부하게 경험되는 세계 즉 ‘dramatic voice’의 세계였다. 그는 Wordsworth보다 Shakespeare에 가까운 이 drama의 세계를 지향하며 시를 쓰게 되었고 J. M. Murry는 *Keats and Shakespeare*에서 Keats의 이러한 특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It was no wonders that Keats, in whom these half-conscious urges were contending, should have turned towards the Shakespearian ideal as he understood it. On the technical side, it meant for him the concrete objectivity of the drama, which seemed to dispense him from the need of a declared ‘philosophy’; on the experiencing side, it would enable him to be as it were merely passive and receptive toward experience. But this latter ideal was not so easy to realize.

본 논문에서는 Keats가 Wordsworth의 'Imagination'과 더불어 추구했던 Shakespeare의 'dramatic voice'의 세계 즉 '극적 진실의 구현'에 초점을 맞춰 아름다운 시어와 이를 더욱 탄탄하게 뒷받침해 주고 있는 극적 구조가 잘 나타나고 있는 세 편의 시 *Ode to a Nightingale*, *Ode on a Grecian Urn*, 그리고 *To Autumn*을 통해 그의 주옥같은 시편들에 기여한 극적 구조의 공헌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하루는 Keats가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는데 그 집 정원에서 나이팅게일 한 마리가 집을 짓고 있었다. 그는 그 새의 감미롭고도 즐거운 노래소리에 그는 감동되고 말았다. 아침식사를 하고 나서 그는 정원에 들어가 어느 나무 밑에 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몇 시간 후에 이 시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하는데 이 시가 바로 *Ode to a Nightingale* 이다. 이 시에 흐르는 애수의 기미는 아마 몇 가지 사연 때문일 것이다. Keats가 아꼈던 동생 Tom 이 그 시를 쓰기 얼마 전에 폐병으로 죽었다는 사실, 같은 병으로 그 자신이 위태로움에 놓여 있다는 것 그리고 Fanny Brawne에 대한 그의 사랑이 도저히 이루어질 가망이 보이지 않았다는 것 등이다. 이 시가 많은 애호를 받고 있는 이유는 그 아름다운 선율, 풍부한 영상 그리고 미와 애수가 한데 얽혀 풍기는 맛때문일터 인데 선율과 영상 그리고 감각적 표현들은 바로 극적 요소의 한 부분들이며 이 시가 극적 세계를 구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요소들이다.

Keats는 그의 무상하며 고통스러운 삶과 달리 오직 기쁨에 넘쳐 영원히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소리를 듣고서, 매우 강렬한 기쁨과 행복을 느낀 나머지 마음이 아프고 감각까지 마비상태에 이를 정도이다. 그는 숲속에서 나이팅게일의 노래를 듣고 강렬한 기쁨으로 가슴이 아파 오고, 감각은 독을 마신 듯 졸리운 마비상태로 괴롭다고 한다. 마치 *Ode on Melancholy*에서 기쁨이 극도에 달하면 그것이 너무 강렬해 곧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과 *Ode on a Grecian Urn* 에서 그리스의 항아리에 감정이입을 통해 느낀 미칠 듯한 황홀경 상태와 유사하다. 이 상태는 다섯째 연의 한

밤중에 아무 고통없이 죽는 것을 간절히 갈망하는 부분에서 절정을 이루고 있으며, 그 다음의 여섯째 연까지 지배하고 있다.

이와 같이 Keats는 가슴이 아프고 감각은 졸리운 듯 마비상태로 된 것이 나이팅게일의 행복을 시기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이 그 속에 동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즉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그에게 생명, 자유, 그리고 편안함을 주어서 그는 황홀한 무감각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Brooks & Warren 343)

이러한 가운데 Keats는 그 노래소리가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찬 현실과 잘 대비를 이루고 있어서, 이를 통해서 그는 그의 현실을 매우 분명하게 인식하게 된다. 그는 고통스러운 현실세계를 벗어나기 위해 기쁨과 행복에 겨우 “헤아릴 수 없이 푸르른 나무 그늘 속에서 목청을 다해 여름을 노래하고 있는”¹⁾ 나이팅게일의 아름다운 노래를 부러워하며 그 세계로 몰입되기를 갈망한다. 이 시를 쓰기전 여섯달동안 자주 후두염(喉頭炎)증세로 목에 고통을 느꼈던 Keats는 목청을 다해 노래하고 있는 나이팅게일이 부럽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러나 나이팅게일의 세계는 단지 “헤아릴 수 없이 뻑뻑한 그늘”(9)속과 “어두운 아늑한 곳에”(8) 있는 어느 장소로 묘사하고 있어 우리는 그 세계가 어떠한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이처럼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대한 막연한 묘사나 아편복용과 그에 따른 몽롱한 정신상태 묘사는 이 시에서 그가 극화시키고 있는 소위 “용해과정”(process of dissolution) 즉, 명확하고 분명한 구분이 가능한 의식세계로부터 벗어나 그늘과 어둠 속에 몰입해 가는 상상적 흐름의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바로 이 용해과정은 극적 구조의 한 단계를 말한다. 이와 같이 첫째 연은 극적 변화를 야기시킬 정신적 불만족 상태가 주로 묘사되었다.

Keats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 꽃의 여신 Flora, 농촌의 풀밭과 춤, 프로방스의 노래와 햇볕에 익는 놀이(mirth)등 남국과 환락과 인생의 희열을 풍겨주는 깊은 땅속에 오랫동안 서늘하게 저장했던 포도주의 힘을 빌리려고 “오! 한 모금의 포도주여!”(O, for a draught of vintage!)(11)라

1) M. H. Abrams, ed al,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Rev. ed. (2 vols : N. Y. : Norton, 1968) (이하 Ode to the Nightingale 작품은 인용 끝에 행만을 표시)

고 한다 여기서 술이 상징하는 것은 환상인데, 이것은 곧이어 강렬한 상상적 체험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암시한다. 이처럼 Keats는 남유럽 프로방스 지방의 포도주를 마시고 남모르게 환상 속의 어두운 숲으로 들어가서 나이트게일과 함께 있기를 원하고 있다. 고통스럽고 무상한 현실세계를 벗어나려는 그의 갈망이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러나 Keats가 묘사한 가볍고 관능적인 용어들 즉, “술잔에 반짝거리는 방울진 거품”(beaded bubbles winking at the brim)(17)이니 붉은 포도주색인 “자줏빛으로 물든 술잔의 주둥이”(purple-stained mouth)(18) 등과 같은 것들 속에 공통적으로 내포되어 있는 의미는 매우 순간적이라는 사실이다. 그리고 취하게 되면 정신세계를 변화시키는 술은 불가피하게도 Keats 자신이 “아무도 모르게”(unseen)(19) 떠나려고 했던 현실세계를 다시 기억나게 만들어준다. 그가 술의 힘을 빌려서 나이트게일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했던 갈망은 그가 벗어나려고 했던 고통스럽고 무상한 현실세계를 생각할 때 그 절정을 이룬다.

Fade far away, dissolve, and quite forget
What thou among the leaves hast never known,

.....

Where Beauty cannot keep her lustrous eyes,
Or new Love pine at them beyond to-morrow.(21-30)

우리 인간이 사는 현실생활은 고난속에서 서로 신음하고 있으나, 어느 누구도 도움을 줄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한다. 즉, Keats 자신의 외조부처럼 노년에 이르러 추악한 형상으로 생명을 이어가기 위해 헛되이 애쓰는 모습이나, 막내동생 Thomas가 폐병으로 죽어간 것처럼 일단 병에 걸리면 어쩔 도리가 없이 비참하게 죽어 가는 것이 바로 현실세계라고 한다. 게다가 Fanny Brawne처럼 미와 사랑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곳이 바로 현실세계이다. 이러한 까닭에 이 세상에서 현실에 대한 깊은 사고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의식 속에 희망은 없고 오직 절망뿐이라고 그는 말한다. 그는 애정문제를 비롯해 인생에 대한 권태로움, 냉정을 잃고 어떤 일에 몰두해서 정신을 잃는 것, 그리고 출세나 명예나 재물을 얻기 위한 초조함을 잊어버리려 하고 있다. 이처럼 그는 첫째 연에서 묘사한 감각적 혼란 상태에 또 하나의 새롭

고 좀 더 철학적인 의미를 지닌 불만족을 초래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술보다 어떤 분명한 방법이 필요하다. 그 방법은 좀 더 강력한 힘을 지닌 상상력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그는 술을 상징하는 “Bacchus의 수레”(32)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시의 날개로 비유한 시의 영감에 의해 나이팅게일의 노래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Away! Away! for I will fly to thee,
Not charioted by Bacchus and his pards,
But on the viewless wings of Poesy,
Though the dull brain perplexes and retards :

.....
And mid-May's eldest child,
The coming musk-rose, full of dewy wine :
The murmurous haunt of flies on summer eves.(31 - 50)

지상에 서있는 시인이 점점 나이팅게일의 노래 세계로 옮겨가는 것은 극적 구조의 주요 인물의 비약이나 바깥세계로 빠져나가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그는 “술은 그만, 그만두어라!”(31)는 호소와 함께 시적 상상력의 힘을 빌어 현실세계를 점점 벗어나고 있다. 비록 완전히 의식이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또렷하고 분명했던 그의 정신상태는 희미해져가다 나이팅게일의 선율이 고운 노래소리 영역에 들어간 상태로 비유한 상상력의 황홀경 속으로 몰입한다. 그와 새가 함께 하고 있는 황홀한 세계는 온통 어두운데, 이것은 억압적이며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매우 부드럽다. 그래서 그는 그 세계를 마치 Cynthia를 연상케 하는 “달의 여왕이 왕좌에 앉아 있으며”(36) 그녀가 인자한 것처럼 주위의 시종 별들에 의해 둘러 싸여있는 하늘의 세계와 가느다란 빛이 간신히 들어오는 녹음이 무성하게 드리워진 숲으로 묘사하고 있다. 달빛이 찬란하게 비치고 있지만 숲이 무성해서 발밑에 무엇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으며, 간신히 들어온 빛으로 어렵פות이 보이는 길은 습기가 많고 축축하다. 그래서 그는 단지 5월에 피고 자라는 풀, 덩굴, 야생과목에서 풍기는 온갖 향기들을 추측으로만 알 수 있을 뿐이라고 한다.

Keats의 상상력이 녹음이 짙은 숲 속의 어두운 세계에 충성하고 아름다운 식물들이 아름다운 전원 풍경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곳은 온갖 자연이 충

만해 있고 구속과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있어서, 폭넓은 이해력으로 직관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런데 시인이 마치 그리스의 항아리에 새겨진 전원 풍경의 조용하고 느린 시간의 변화 과정의 세계를 연상케 하는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들어갔다는 점은 질병과 죽음에 대한 의식으로 전혀 시달리지 않고 기쁨과 충만함으로 가득찬 삶을 느끼고 싶은 인간적 욕망에서 나온 것으로 시의 날개로 비유한 강렬한 상상력으로 그가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하나가 되어 황홀경속에 놓인 것은 세속적 삶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벗어나 상반적이고 모순적인 삶이 하나로 조화있게 어울려 있는 아름답고 환상적인 세계를 경험하게 하는 예술의 힘을 극화한 것이다.

Keats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세계인 상상세계 속에서 더없는 기쁨과 행복을 강렬하게 느끼고 있는 순간, 그것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맛보려는 욕망으로 죽음을 갈망한다. 그가 갈망하고 있는 것은 단지 고통을 잊어버리고 강렬한 기쁨과 행복을 영속적으로 간직하기를 바라는 것이지, 실제로 죽으려는 의도는 아니다.

Darkling I listen : and, for many a time
I have been half in love with easeful Death,
Call'd him soft names in many a mused rhyme,
To take into the air my quiet breath ;

.....
Still wouldst thou sing, and I have ears in vain --
To thy high requiem become a sod.(51-60)

Keats는 상상력을 통해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간 뒤, 그 세계속에서 영원히 그 새와 하나가 되어 함께 노래하고 좀 더 강렬한 기쁨과 행복을 만끽하고 싶어서, 시적인 강렬성(poetic intensity)에 대한 영원한 갈망으로 상징되어 있는 죽음을 바라고 있다.

나이팅게일이 황홀경 상태에서 영혼을 내 쫓듯이 울고 있는 동안 그는 죽음을 이루어 고통을 극복하고 기쁨과 행복을 지속적으로 간직하려고 한다. 고통을 극복하려는 그의 모습이 절정을 이루고 있다. 나이팅게일의 세계에 들어와 새와 똑같은 존재가 된 그는 새에게 애원하기를 “그러한 황홀함 속

에서 그대가 네 영혼을 쏟고 있는 동안”(57-58) “내 고요한 숨길을 바람에 흩으라”(54)고 한다 “편안한 죽음을 반 정도 더 사랑한”(52) 그는 잠시 어둠 속에 휩싸인다. 그리고 나서 이 시는 뛰어난 아이러니를 통해 분위기가 새롭게 바뀐다. 새와 영원히 하나가 되려는 그의 갈망이 자신의 무상함을 생각하게 만든 것이다. 그래서 그는 새에게 “너는 여전히 노래하리라. 그리고 나는 듣지 못하리 ... 네 높은 진혼가에 나는 흠이 되리”(59-60) 라고 한다. 새의 노래세계와 하나가 되어 강렬한 기쁨을 느끼는 순간에 그는 현실세계의 덧없음을 생각하게 되어 다시 현실세계로 돌아온다.

현실세계로 돌아와 느끼는 그의 비통함과 쓸쓸함은 나이팅게일의 노래의 세계를 덧없으며, 변화무쌍한 현실세계와 대조적으로 묘사한 부분에 와서 잘 나타나 있다.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먼 고대시대부터 그가 노래를 듣고 있는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누구에게나 강렬한 기쁨과 행복을 줄 것이라고 한다.(61-71)

분위기는 다시 슬프게 바뀐다. 우리는 Keats가 나이팅게일의 노래와 하나가 되었던 것이 매우 강렬한 체험이었으며 그로 인해 그가 터득한 지식이 얼마나 그의 마음속에 큰 부담을 주었는지 알 수 있다.(Vendler 104) 그가 현실세계로 돌아와 자신의 세계를 생각하게 되자,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그에게 시간적으로 점점 먼 소리로 들린다. 그래서 그는 자신을 무상하며 고통스런 현실세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행복과 아름다움으로 가득찬 상상세계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해준 나이팅게일을 우리 인간의 역사와 함께 더불어서 살아온 새로 승화시키고 있다. 즉, 그는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아주 먼 고대시대의 황제나 광대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여인 Ruth에게도 위안과 기쁨을 주었던 노래라고 한다. 게다가 그 노래는 중세시대의 어느 나라를 연상케 하는 “쓸쓸한 요정의 나라”(70)에서도 위안과 기쁨의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사라지고 “쓸쓸한!”(71) 이란 용어를 다시 한 번 사용하면서 시인이 완전히 현실세계로 돌아오자, 처음 시작할 때 분위기로 되돌아가는 느낌이다. 이것은 *Ode on a Grecian Urn*에서 시인이 상상세계에 들어가 체험한 영원한 예술미를 지니고 있는 그리스의 항아리의 표면에 새겨진 그림의 세계가 단지 차가운 대리석에 불과한 것임을 깨닫고 느끼는 쓸쓸함과 유사하다. 그는 나이팅게일의 노래가 더 이상 행복하게 묘사하지 않고, 대신 하나의 “서러운 노래”(75)로 표현하고 있다.

Forlorn! the very word is like a bell
 To toll me back from thee to my sole self!
 Adieu! the fancy cannot cheat so well
 As she is fam'd to do, deceiving elf.
 Adieu! adieu! thy plaintive anthem fades
 past the near meadow, over the still stream,
 Up the hill-side : and now 'tis buried deep
 In the next valley-glades :
 Was it a vision, or a waking dream?
 Fled is that music : -- Do I wake or sleep?(71-80)

나이팅게일의 노래는 한 때 “드높은 진혼곡”(60) 처럼 들렸지만 이제 “서러운 노래”로 들리고 아주 먼 곳으로 사라져 가고 있다. 이러한 나이팅게일의 노래의 극적 변화는 앞에서 시인이 선율이 아름다운 새의 세계속으로 들어가고 싶었던 소망과 이어 그가 경험한 정신적 불만족 상태를 생각나게 만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매장(burial)의 모티프에 대한 묘사들이 갑자기 나오는데 이것은 나이팅게일이 “다음 골짜기의 숲 속으로 깊이 묻힌다.”(77-78)는 의미로서 매우 풍자적이다. Keats가 일상적이지만 좀 새로워진 의식상태로 돌아 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이 시는 “잘있으라! 꾸밈새 좋은 환상도, 소문과 달리 우리를 오래 속이지 못하느니, 속임수 잘 쓰는 꼬마 요정이여”(73-74)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냉소적인 분위기로 어두워진다.

영원히 기쁘고 끝없는 행복에 겨운 나이팅게일의 노래에 감동하여, 그 노래의 세계로 상징된 상상세계속으로 몰입하면 현실세계의 무상함과 고통을 모두 잊게 되고, 아울러 영원하며 기쁨으로 가득차 있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 Keats는 상상세계에서 얻은 것이 아무것도 없이 그저 쓸쓸함과 고독뿐이다. 그래서 그는 덧없음과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상상세계속에만 안주하는 것이 오히려 현실의 삶이 줄 수 있는 일말의 기쁨과 행복마저도 느낄 수 없게 만든다는 사실을 잘 알게 된다. 더욱이 그는 *Ode on Melancholy*의 중심주제이기도 한 고통과 기쁨의 상호 불가분성을 잘 알게 된 것이다. Cleanth Brooks는 나이팅게일의 노래의 영원함과 인간의 덧없음의 대조적인 면을 묘사한 것에 주목하면서 이 시의 주제를 이렇게 언급했다.

Indeed, the general theme of the poem may be described as that of the following paradox : the world of the imagination offers a release from the painful world of actuality, yet at the same time it renders the world of actuality more painful by contrast.(31)

이 시의 극적 진행과정의 구조는 그의 다른 시들에 이용한 것보다 분명하고 시 구성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즉, 시인이 정신적 불만족 상태에서부터 상상의 황홀경속에 들어갔지만, 결국 그 곳에서 자신을 지금까지 매혹시켜 왔던 것이 자신의 현실을 완전히 잊게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거부하고 오히려 자신의 세계의 한계성을 보다 심오하게 인식하게 되는 구조인데, 이것은 세 부분으로 된 병적인 상태, 깊은 잠의 상태, 그리고 의식의 회복상태의 구조를 그의 다른 시보다 분명하게 이용한 것으로 발단, 위기, 결말의 극적 긴장 구조와 일치하는 것이다.

III

*Ode on a Grecian Urn*은 Keats가 대영 박물관을 방문했을 때 영감 (inspiration)을 얻은 것이라고 한다. 그곳에서 그는 여러 가지 미술품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박물관에 소장된 지 얼마 안되는 Greece의 조각품들이 그의 관심을 끌었다. Greece 항아리의 아름다움에 깊은 감명을 받은 Keats는 그의 상상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했던 것이다. 항아리에 새겨진 말없는 인물들이 실제로 구애하는 목자인양 생생하게 모습을 나타내고 숲속의 제단에 참배하러 행렬을 짓고 나오는 동네 사람들의 모습 역시 살아 움직이는 듯 펼쳐진다.

이 시의 주제는 이 모든 아름다운 모습을 지닌 것들의 영원한 생명, 나아가서는 그들의 열락과 고요한 행복의 영구성이라는 것이다. 그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있어 예술의 극치와 직결됨은 물론이다. 이러한 존재의 영구성이 찬미되는 배후에는 분명히 인간의 환락의 무상함, 그리고 열심히 추구했던 행복이 달성되는 순간에 우리에게 안겨지는 실망 이런 것들을 의식하는 애수의 숨결이 전해온다. 항아리는 조각된 그림을 통하여 3개의 이야기를 전해

주는데, 그는 향아리라는 예술세계를 통하여 감각적 미의 세계로 영원한 예술세계와 융합하고 있다.

Heard melodied are sweet, but those unheard
Are sweeter ; therefore ye soft pipes, play on :

.....

Fair youth beneath the trees, thou canst not leave
Thy song, nor ever can those trees be bare ;
Bold lover, never, never canst thou kiss,
Though winning near the goal-yet do not grieve :
She cannot fade, though thou hast not thy bliss,
For ever wilt thou love, and she be fair!²⁾

현실세계의 요란한 음악보다는 “들리지 않는 음악은 더 아름답다.”(those unheard are sweeter(11-12)) 향아리 속의 나무는 절대 시들지 않는다. “여인들은 항상 젊고 아름답다”(she cannot fade, though thou hast thy bliss she be fair(19-20)). 험떡이면서 쫓아가는 젊은이의 정열은 영원히 변함없다.

who are these coming to the sacrifice?
To what green altar, O mysterious priest,
Lead'st thou that heifer lowing at the skies,
And all her silken flands with garlands dressed?

.....

Will silent be ; and not a soul to tell
Why thou art desolate can e'er return.(31-40)

제사 의식도 천상의 세계처럼 “신비롭고”(mysterious)(32), “경건하다.”(pious)(37) 사람들은 희생할 소를 데리고 가고 있고 소는 하늘을 향해 울음을 울고 있는 적막한 분위기가 흐른다. 그들은 영원히 행진할 것이며, 시간의 흐름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러나 아무도 왜 마을이 이렇게 사람하나 없이 황량한 이유를 말해 줄 수는 없다. 그리고 그는 “Attic shape”(41)과 “Cold

2) John Keats, *Ode on a Grecian Urn* 11, 11-20 (이하 인용 위에 행수만 표시)

pastoral!”(45)라고 외치면서 향아리 속의 그림들이 단지 현실과는 다른 차가운 대리석의 예술의 세계임을 인식한다.

들리지 않는 음악은 어떤 울동감도 없고 영원히 같은 음악일 것이며, 연인과 결코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다. 제사지내려 가는 행렬의 장면에서 소는 희생되지 않을 것이며, 사람들도 영원히 마을로 돌아오지 못한다. 그것은 단지 “침묵하는 형상으로서 우리의 생각이 미칠 수 없는 곳에서 우리는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다.”(Thou, silent form, dust tease us out of thought)(44)

향아리는 아름다운 3개의 조각을 통하여 영원히 인간들의 곁에서 “미는 진리이고 진리는 미”(Beauty is truth, truth beauty)(49)라고 말하고, 미를 성취하도록 격려하지만 미를 성취할 수 있는 것은 예술의 이상세계가 아니고 “이 세상”(on earth)(50)임을 인식시켜 준 것이다. 이상세계를 통하여 현실에 존재하는 진정한 미를 성취하도록 격려 받는 것이다.

이 시의 극적 구조를 분석해보면, 1연에서는 예술로 승화된 신화 시대의 삶의 한 컷에서 우주와 인생의 비밀을 캐내려는 시인의 집요한 태도가 7개의 wh-question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한 문제의 제시는 극의 구조상 도입부(introduction)에 해당된다. 2연에서는 예술(melodied, pipes, ditties, song)과 사랑(lover, kiss, love)과 자연(the trees, those trees)이라는 삶의 세 축을 발견하여 서술적으로 풀어 내고 있는데, 이는 극의 구조상으로 볼 때 발달부(development)로서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제시해 주며, 3연에서는 자연과 예술과 사랑을 한층 더 찬탄하는 내용을 세 개의 “Happy + 명사 + 긴 형용사절”의 형태로 표현해내고 있는데 극의 구조상 이부분은 터닝포인트라 할 위기부(crisis)에 속한다. 또한 4연은 인간과 신이 교통할 수 있는 엄숙한 제의의 비밀을 세 개의 의문문으로 추궁한 다음 내리는 결론을 하나의 서술문에 담고 있는데 극의 구조상 절정(climix)에 이르는 부분이며, 마지막 5연에서는 1-4연에서 사색한 것을 바탕으로 자연과 인생과 제의로서의 예술에 관한 종합적인 결론을 서술문으로 내림으로써 대단원(denouement)의 막을 내리고 있는데, A. W. Pinney는 이 시의 주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The ode attempts to suggest a third alternative, a mode of reading that does not take the story out of history, and vice versa, acknowledging the role of the interpreter as participant in the

interpretive act. But in taking up this stance, the poem must also renounce any claim to be able to determine its own interpretation definitively, just as I must renounce any claim that this essay might close the history of its reading. In committing his work to the future, Keats realised, he was also committing it to the medium of history, to the perpetual reading and reinterpretation that maintains our dialogue with the past.(153)

IV

Keats는 *To Autumn*을 쓸 무렵 늘 저녁식사 전에 혼자 산보를 하곤 했다고 한다. 그는 한달 전에 보았던 누렇게 익어가던 밀밭이 추수로 인해 텅빈 들판으로 점점 변하고 있는 모습을 유심히 보았다. 추수가 끝난 시골 들판을 거닐며 평화로운 가을 풍경속에서 자신에게 있었던 지난 여름철의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체험들을 잊을 수 있었다고 한다. 가을의 자연풍경이 그에게 정신적인 충만감을 주었던 것이다.

Keats는 가을의 자연속에 그의 감정을 이입(empathy)시켜 상상속에 나타나는 가을의 모습을 묘사했는데, 첫째 연에서 가을은 만물을 성숙시키는 태양의 절친한 친구로 묘사했다.

Season of mists and mellow fruitfulness,
Close bosom-friend of the maturing sun ;

.....
To swell the gourd, and plump the hazel shells
With a sweet kernel ; to set budding more,
And still more, later flowers for the bees,
Until they think warm days will never cease,
For summer has o'er-brimm'd their clammy cell.³⁾

가을은 태양과 함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결실맺도록 하고 있다. 가을은

3) John Keats, *To Autumn*, ll 1-11(이 작품의 인용은 끝에 행수 만을 표시)

추수 직전의 성장이 지속되고, 풍요함이 절정상태에 있는 모습이다. 이러한 가을의 모습은 모든 것을 핵심까지 익게 하며 성숙시키는 태양의 영향으로 풍성한 결실을 맺고 있는 식물세계로 표현했다. 즉, 주렁주렁 매달린 포도송이, 초가지붕을 뚫어나간 토실토실한 박, 가지를 휘게 할 정도로 익은 사과, 달콤한 인(kernel)으로 굶어진 개암, 그리고 가을 준비에 바쁜 꿀벌들 등 모든 것이 성장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풍요롭다 못해서 넘쳐흐르고 있다. 특히 그는 “벌들을 위해서 철늦은 꽃들을 피우게 한다” (9)는 표현으로서 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가을의 넘쳐흐르는 풍요로움의 이미지들의 이면에는 쇠퇴와 죽음의 겨울이 다가옴이 암시되어 있다. Keats는 *Ode on Melancholy*에서 제시한 슬픔과 기쁨, 성장과 죽음이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가을의 자연에서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Ode on Melancholy*의 분위기와는 달리 가을과 태양의 두 친구들은 겨울이 다가옴을 두려워하지 않고 침착하고 행복하게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어서 가을은 의인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Keats는 고요하고 풍부한 가을을 의인화시켜 영원한 생명을 부여해 주었던 것이다.

Who hath not seen thee oft amid thy store?
 Sometimes whoever seeks abroad may find
 Thee sitting careless on a granary floor,
 Thy hair soft-lifted by the winnowing wind ;

.....
 Or by a cyder-press, with patient look,
 Thou watchest the last oozings hours by hours.(12-22)

가을은 추수한 곡식 낱알들을 키질하고 있는 농촌 아낙네처럼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키질하는 바람에 의해 날리며 곡간 마루에서 아무렇게나 앉아있다. 가을은 반쯤 거뒀던 밭이랑에서 꽃망울 엉켜진 양귀비꽃 향기에 취해 추수하던 낫을 집어던지고 잠든 농부의 모습으로도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가을은 곡식 이삭을 가득 담은 광주리를 머리에 이고 시냇물을 건너가고 있는 농촌 아낙네의 모습과 과즙 짜는 틀의 곁에서 참을성 있는 표정으로 과일의

마지막 진물까지 짜려고 몇 시간이고 지켜보고 있는 농촌 아낙네의 모습으로도 나타나 있다. 그의 상상속에서 의인화되어 묘사되어 있는 가을의 영상이 첫째 연의 고요함과 정지 상태와 달리 움직이는 모습들로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움직임은 거의 정지상태나 마찬가지인데 아름다움이 최고에 이른 모습이다. 이것은 그의 독특한 시적 감각이 아름다움을 만들어 낸 것이며, 추수 과정을 표현한 것이고 잠시 지체되어 있지만 계속해서 죽음과 정지상태를 상징하는 겨울이 내포되어 있다.

모든 성장과 결실을 다 이루고 난 직후의 풍요로움과 평화스러움이 가득 찬 상태를 제시하기 위해서 가을을 여성으로 의인화시켜 묘사했고 이 여성의 이미지는 마치 성적 행위와 생산 활동이 끝난 뒤에 오는 휴식 상태의 수동적인 모습으로 제시되었다. 즉, 이 여인은 Keats가 지금까지 동경해 온 이상적 대상물의 이미지와 비슷한 것으로 Psyche 여신과 나이트िंग게일의 노래와 그리스의 향아리, 그리고 Melancholy여신의 이미지들로부터 발전해 온 결실과 충만함이 최고조에 이른 존재이다. 그는 무상한 가을의 자연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발견하고 나서 가을의 추수광경을 조용하고 정지 상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묘사함으로써 가을의 충만함이 영원히 아름답게 보존되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쇠퇴와 죽음을 의미하는 겨울이 서서히 다가옴을 암시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생과 죽음, 성장과 쇠퇴, 머무름과 출발, 그리고 여름과 겨울의 음악인 가을의 노래를 듣게 되며 가을은 동물, 새, 곤충 등의 동물세계의 온갖 노래 소리들로 나타난다.

Where are the songs of springs? Ah, Where are they?

Think not of them, thou hast thy music too, --

While barred clouds bloom the soft-dying day,

And touch the stubble-plains with rosy hue :

.....

The red-breast whistles from a garden-croft :

And gathering swallows twitter in the skies.(23-33)

이 작품의 극적 구조를 분석 해 보면 첫째, 둘째 연에서는 가을의 성장과

정지 상태의 시각적인 이미지들이 주로 묘사되었는데, 이 마지막 연에서는 지나가 버린 성장과 결실의 계절인 가을에 대한 회상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출발과 죽음의 청각적 이미지들인 여러 소리로 나타나 있다. 이 소리들은 겨울이 한층 더 가까이 다가왔음을 암시한다. 가을의 노래들에는 하루 해가 저물어 가고,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있는 쇠퇴와 죽음의 늦가을의 이미지가 암시되어 있다. 무대 설정도 첫째 연의 시골집 정원과 둘째 연의 시골 들녘과 곡간으로부터 이제 우리들의 시각적 인식에서 더욱 멀어진 먼 산과 하늘로 서서히 넓혀지고 있다.

그러나 시인은 겨울의 이미지가 한층 더 많이 내포되어 있는 가을의 노래로 비유한 청각 이미지들을 인간사의 문제들로 전혀 고통받지 않는 매우 부드럽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지닌 가을 노래들로 그는 하루살이 때의 합창, 다 자란 양의 울음소리, 여치 울음 소리, 방울새의 노래, 제비들의 지저귀 등을 비유했다. 이들은 겨울이 다가옴에 따라 죽거나 떠나야만 하지만 전혀 슬픔을 느끼지 않는 듯이 기쁨으로 가득차 노래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다시 우리들의 귀에 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가을은 성장과 쇠퇴라는 유기적 삶의 과정을 모두 내포하고 있는 하나의 생명체와 비슷하다. 그리고 가을은 나이팅게일과 달리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계절의 끊임없는 순환질서 속에서 다시 돌아와 우리들 곁에 함께 있을 것이다. 계절의 순환을 영속적인 것으로 인식하게 된 Keats는 봄과 여름이 지나갔음을 안타깝게 생각하지 않으며, 가을의 노래도 봄의 노래 못지 않게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가을의 풍요로움은 겨울을 무난히 넘길 수 있게 해주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새롭게 약동하는 봄을 다시 맞이하게 되고 잃어버린 봄의 노래도 되찾을 수 있기 때문에 가을의 노래는 인간에게 봄의 노래만큼 중요하다.

V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려는 Keats의 노력은 자신의 중심 문제를 밝히는 데 있어서 좀 더 적절한 자기만의 시적 기술과 구조를 모색하게 했다. 그는 많

은 선배 시인들의 시적 기술과 구조를 모델로 삼았지만 그가 일관되게 Shakespeare를 존경하고 모색했던 결과 자신의 시적 구조를 긴장의 구조로 이끌어 가는 “극적 구조”(dramatic structure)를 많은 시에 적용함으로써 독특한 시적 표현을 획득하는데 성공했다.

그의 시적 기술들은 원만하고 우아한 운율, 하나의 경험을 완벽하게 파악하려고 모든 감각을 동원한 구체적인 묘사, 압축된 적절한 어법, 그리고 분리될 수 없으면서도 융화될 수도 없는 상반적인 사물들이 얽혀 있는 한 덩어리로서의 모든 경험을 제시하는 독특한 기법이 있다. 시적 구조는 화자가 현실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또는 좀 더 나은 변형을 위해, 상상력으로 그가 명상하는 대상과 완전한 일치를 이루고 자신의 주체를 상실하는 듯이 보이는 순간 그가 외부 사물의 순수한 존재에서 느끼게 되는 강렬한 쾌락과 만족감을 얻고 나서, 새로운 세계로 도약하거나 기력을 되찾아 의식세계로 돌아오는 극적 구조를 가진 패턴이다.

특히 그의 성숙기의 대표 작품이라 할 *Ode to a Nightingale*에는 화자가 상상력의 힘으로 자신의 현실세계와 달리 언제나 아름답고 기쁘게 노래하고 있는 나이팅게일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세계를 체험하고 그 체험이 좀 더 강렬하며 영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바라면서 죽음을 갈망하지만, 결국 그 세계에 오래 머물 수 없음을 알고 현실세계로 다시 돌아와 쓸쓸함을 느끼는 내용이 제시되었다. 바로 이 전체적인 내용의 구조는 발전-위기(갈등)-결말의 극적 구조로 되어있다. 여기서 시인은 덧없음과 영원함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명하려고 시도했던 것이다.

*Ode on a Grecian Urn*에서도 시인이 그리스의 고병에 매혹되어 감정이입(empathy)의 상태에서 예술의 극치 속으로 들어갔다가 환락의 무상함을 인식하고 미를 성취할 수 있는 곳은 이상세계가 아니고 현실임을 확인하는 극적구조를 취하고 있다.

*To Autumn*에서 시인은 순간적이고 변화성있는 현실 세계의 특성을 잘 대변하고 있는 가을의 여러 모습에서 자연스럽고 평화스럽게 변형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큰 기쁨으로 체험한다. 그는 덧없음과 영원함이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자신이 살고 있는 인간 세계의 모습에서 발견하고 끝없는 행복을 느꼈다. 이 시에는 마치 화자가 변화 과정의 구조의 모든 단

계들을 체험하고 나서 현실세계로 돌아와 냉정하고 분명해진 인식력을 가지고 좀 더 아름답고 건강한 삶을 모색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이렇게 볼 때 Keats의 극적 구조 패턴의 적용이야말로 아름답고 행복한 삶의 모색이라는 그의 중심 주제를 자신의 시속에 차분히 밝히는데 유려한 시어의 구사와 함께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Works Cited

- Abrams, M, H, et al. (1968) *The Norton anthology of English literature*, New York : Norton,
- Allott, Miriam. (1958) “ ‘Isabella’, ‘The Eve of St, Agnes’ and ‘Lamia.’ ” : *John Keats a reassessment*. (Ed.) K. Muir. Liverpool Univ. Press,
- Baker, Jeffrey. (1986) *John Keats and symbolism*. Sussex : The Harvester Press,
- Barnard, John. (1987) *John Keats*, Cambridge : Cambridge Univ. Press.
- Brooks, Cleanth. (1965) *Modern poetry and the tradition*. Oxford : Oxford Univ. Press.
- Brooks, Cleanth and Warren, & Robert Penn. (1976) *Understanding poetry*,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4th ed).
- Dickstein, Morris. (1971) *Keats and his poetry : A study in development*, Chicago Univ. of Chicago Press.
- Kitson, Peter J. (1996) *Coleridge, Keats and Shelley : Contemporary critical essays*, London : Macmillian.
- Murry, John Middleton. (1968) *Keats*. Rev. (Ed.) N. Y. : Minerva.
- Slote, Bernice. (1957) *Keats and the dramatic principle*. Cambridge, England : Cambridge Univ. Press.
- Sperry, Stuart M.(1973) *Keats the poet*. Princeton Univ. Press.
- Vendler, Helen.(1983) *The odes of John Keats*. Cambridge, Mass. : Harvard Univ. Press.
- Waldoff, Leon.(1985) *Keats and the silent work of imagination*. Urbana and Chicago : Univ. of Illinois Press.